

# 소중한 가치, 건강한 미래를 지키다

##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글 조병례 사진 박찬혁



직업병이나 각종 재해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 보건과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일이다. 이에 발맞춰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전문적인 보건·안전 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어 매년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 다양한 산업 현장 곳곳에서 능력 발휘하는 리더를 키워내는 곳.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를 찾았다.



(왼)강태선 교수와 학과장 강영식 교수

## 대한민국의 보건과 안전을 이끄는 전문가로 양성

정부가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마지막 항목으로 주력하고 부분이 있다. 바로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한 가지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좀 더 심층적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시선이 무척 중요하다.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는 국내에서 드물게 보건과 안전을 함께 교육하는 대학 중 하나다. 1993년 안전공학과로 출발해 2006년 보건안전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안전보건공학 또는 안전환경공학이 아닌 ‘보건안전공학’이 된 이유에 대해 학과장 강영식 교수가 설명했다.

“우리나라 산업 안전과 보건 인프라가 아직은 2만 달러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GDP가 3만 달러 규모 국가라면 안전을 넘어 보건, 위생 관리에 앞장서야 합니다. 학과 명칭의 변경은 그런 의미를 따른 것입니다.”

강영식, 강태선 교수와 마주 앉아 보건안전공학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영식 교수는 휴먼에러 예방 및 시스템 안전,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산업안전보건정책, 위험성 등을 연구하며 인간공학과 시스템안전공학, 산업안전관리론 등을 강의한다. 강태선 교수는 산업보건과 산업안전보건 제도, 지역사회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연구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산업독성학, 안전보건법규 및 실무 등이 그의 강의 과목이다.





66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만큼  
보건·안전은 매우 가치 있는 학문입니다.

99

### 현장 경험의 노하우와 다양한 지원으로 차별화

보건안전공학과의 첫 번째 교육 목표는 산업보건, 산업안전, 건설안전 등의 분야에 필요한 전문 보건, 안전 관리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실험과 실습 교육뿐 아니라, 산학협동 체제를 통해 산업 현장 적응력을 배양시키고 1인 1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한 덕분에 취업의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2014년부터 보건관리자가 되려면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이 필요해졌으며, 보건 및 안전 분야는 현행 법에 의해 기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취업의 우선 기회가 주어진다.

졸업 후 주로 병원, 대기업 건설사 등으로 입사하는 보건안전공학과는 세명대학교 38개 학과 중

Top3에 이르는 취업률을 자랑한다. “전국에 안전 관련 학과는 15곳에 불과합니다. 보건을 함께 가르치는 곳은 더 적죠. 이런 강점 때문에 우리 학과는 편입하는 학생 수도 많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학생들의 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느낀다고 강역식 교수가 덧붙였다.

또 하나의 강점은 보건안전공학과의 2019년부터 3년간 유지되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약 40억 원의 지원금이 연구 지원과 장학금에 사용된다. 자율개선대학이란 강의 평가, 취업률, 학생 충원율, 교수 연구 실적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자격이므로, 보건안전공학과의 위상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수진은 모두 현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육성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오늘도 강

의에 임하고 있다. “실제로 2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갖춘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태선 교수의 말이다. 설비 및 기자재의 아낌없는 투자는 물론 교수진의 열정이 더해진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는 교육 여건이 우수해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안전은 생명,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다

방재안전, 재난안전, 식품안전 등 모두 넓은 분야에서 하나의 ‘안전’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하나의 정체성 안에서 같은 위험성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유해인자가 많거나 누출됐을 때, 위험을 초래할 때 그 안에는 노동자가 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이는 노동자인 동시에 국민이다.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유출 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역시 이런 사례다. 수많은 요인들이 겹쳐 발

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역할이다.

강영식 교수가 설명했다. “안전은 곧 생명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보건·안전은 매우 가치 있는 학문입니다. 반면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산업안전, 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안전, 원자력안전 등 위험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심과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크고 작은 사고 후 절망하기보다,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생활 속 안전의 탄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뛰고 있는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위험을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지는 현재, 보다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